

나주시, 전 시민 학습권 보장 '평생학습도시' 구축 박차

시 평생교육협의회, 전남 첫 '배움바우처' 9월 시행 1인 15만원 지원...장애인 참여확대 등 27과목 신설

나주시가 전시민 학습권 보장 등 평생교육 실현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2023년도 평생교육협의회'를 갖고 모든 시민의 학습권 기회 제공을 위한 '나주애 배움바우처' 시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해 노인과 장애인 등 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 대학·기관 협력 기반 '연계' 학습을 통해 시민 5600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250과목을 운영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만점 기준 97.13점을 기록했다. 15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60명이 취·창업 결실을 맺었다.

학습 인프라를 두텁게 만들어줄 공모사업은 교육부 주관 2건(성인문해-에코제인지메이커), 전남도 주관 3건 사업에 각각 선정돼 강좌, 체험 프로그램

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올해는 '보편적 평생학습강화, 모든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목표로 학습을 통해 개인의 사회 변화 대응 역량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전남 지역 최초로 '나주애 배움바우처'를 9월부터 추진한다.

만 19세 이상 시민 중 유사 바우처 사업 수혜자를 제외한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만원 상당 학습활동 수강료(카드)를 지원한다.

기존 운영해오던 국가평생학습바우처 시스템 등 9개 기관 60개 강좌를 200여개 강좌로 확대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 올 상반기 굵직한 성과도 평생학습 참여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인

다.

앞서 지난 달 나주시는 3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새롭게 지정됐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학습도시 나주'를 비전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공통체 구축 등 4대 핵심 목표에 맞춘 평생학습 27과목을 신설했다.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디지털 문해교육 학습기기 지원,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전남 도민정책학교 등도 본격 추진한다.

이 외에도 성인문해, 목사고을 배달 강좌, 경력단절 학부모·직장인 야간 평생교육, 청소년 환경 생태교육,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교육 등 다양한 분야 평생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최적의 평생학습 인프라와 앞서가는 정책을 기반으로 학습을 통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 대한민국 명품 평생학습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가 모든 시민의 학습권 기회 제공을 위해 도내 최초로 '나주애 배움바우처' 신규 시책을 9월부터 추진한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플라워 소이캔들 만들기. (나주시 제공)

강진군, 인구감소 대응 주택 2000세대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활용, 은퇴자 등 유입 방안 마련 '푸소' 시즌 2·묵은지 사업 등 일자리 창출 7개 사업도 지속

강진군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하나로 주택 2000세대를 조성하기로 했다.

군은 '인구감소 대응 5개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원 규모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강진군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주택 2000세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빈집 등을 정비해 은퇴자와 귀농·귀촌인 정주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이다. 또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푸소' (FU-SO) 시즌 2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묵은지 사업' 등도 지속한다.

지난해부터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

로 병영면 마을호텔 조성, 사외재 주변 생활형 숙박 시설 조성,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 강진 한정식 체험관 조성,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확대, 농산물 직거래 통합플랫폼 구축, 귀농·귀촌인 마을 여건 개선 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앞으로 10년간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함평군 손불면에서 농협 함평군지부·손불농협·농기주부모임 30여 명이 영농지원 발대식을 열고 고추 모종 심기를 돕고 있다. (농협 함평군지부 제공)

농협 함평군지부, 영농 지원 발대식

농협 함평군지부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12일 영농지원 발대식을 열고 농촌 일손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발대식은 이날 오전 함평군 손불면 고추밭에서 열렸다.

농협 함평군지부와 손불농협 임직원, 농기주부모임 함평군 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이 고추 모종을 밭에 심었다.

농협 함평군지부는 영농지원단 출발을 알리고 지역 농업현장에서 양파 수확과 육묘 작업 등을 도울 예정이다.

이광재 함평군지부장은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기 위한 범농협 영농지원 발대식을 열었다"며 "앞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장을 찾아 인력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계속"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몽골 계절근로자 유치...농촌 인력난 해소 기대

장성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11일 몽골 4개 자치단체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과 몽골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몽골은 장성에서 일하게 될 근로자들이 언어 등 필수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입국 후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현지 지자체장이 추천·보증하는 근로자만 선발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몽골 근로자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사전 비자 신청을 지원하고 고용능가 수요 조사를 담당한다.

일자리 준비에만 머물지 않고 우수 농업기술 전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장성 체류 지원을 위한 민선8기 공약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기숙사는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장기 체류 유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21~30일 고인돌 축제 14일~5월 10일 차량 통제

화순군이 봄축제 기간 동안 고인돌 유적지 내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화순군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동안 고인돌유적지에서 '2023 화순 고인돌 축제'가 열린다.

화순군은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14일부터 5월 10일까지 고인돌유적지 내(춘양면 고인돌 안내소~도곡면 안내소)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다.

대신 35인승 중형버스 4대를 투입해 운주사 관광 셔틀버스, 축제장 탐방 셔틀버스, 개막식 셔틀버스, EDM 페스티벌 셔틀버스 등 4가지 형태로 운영한다.

또 탐방열차나 전기차에 관광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축제장 셔틀버스를 추가로 운영한다. 35인승 셔틀버스 2대를 축제 기간인 21~23일, 29~30일 5일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 '예쁜 정원' 콘테스트 5월12일 신청 마감

담양군이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활성화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예쁜 정원 콘테스트'를 연다.

예쁜 정원 콘테스트는 지난 2020년 처음 열린 이후 올해로 4번째다.

앞서 수상한 달빛여행정원과 명지원은 산립정장이 후원하는 전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콘테스트는 개인주택이나 카페, 음식점과 단체, 시설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해 꾸민 정원으로, 개인과 근린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군민은 5월12일까지 정원의 특징과 사진과 참가 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